

말레이시아 2019: 희망연합의 위기와 새로운 야권공조 출범

김형종* · 황인원**

국문초록

2019년은 희망연합 정부의 개혁이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수권 연합으로서의 성공적 안착에 있어 정치적 부담이 증가했다. 안와르 이브라힘 (Anwar Ibrahim)을 중심으로 차기 집권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한 인민공정당 (Parti Keadilan Rakyat)내 파벌 갈등과 총리직 이양을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 야권의 공조와 종족 정치의 강화는 정치적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상했다. 전 정권의 부패에서 비롯된 취약한 재정 여건과 국제경기 침체 등의 대외적 여건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입안에 있어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궐선거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의 동향은 현 정부의 국정수행 능력에 대해 회의적이지 않았다. 이슬람 관련 국제 문제와 중국에 대한 실리적 접근은 종족정치와 경제 문제와 같은 국내 정치적 사안의 연장선에서 전개되는 형국이다. 2020년은 위기에 봉착한 희망연합 체제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주제어: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모하마드, 안와르 이브라힘, 희망연합, UMNO

* 제1저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국제관계학과 부교수, kimsea@yonsei.ac.kr.

** 교신저자,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hwang@gnu.ac.kr.

I. 서론

2018년 5월, 말레이시아는 1957년 독립 이후 61년 만에 최초로 여야 간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2019년은 정권교체에 성공한 희망연합(PH, Pakatan Harapan)이 수권연합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한해였다. 과거 국민전선(BN, Barisan Nasional) 체제 이후, 새로운 야권연대를 이끌며 PH 체제를 통해 집권 2기를 맞이한 마하티르(Mahathir Mohammad) 총리의 개혁이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을 중심으로 차기 집권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한 인민공정당(PKR, Parti Keadilan Rakyat)내 파벌 갈등이 어떻게 조율될 것인가? BN이 총선 패배의 충격을 극복하고 PH의 대안세력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가? 신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어야하는 과제에 얼마나 성과를 보일 수 있는가? 2019년 말레이시아 정가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PH의 개혁 노력이 현재 진행형으로 결과를 예단하기에 이르지만 2019년에 PH정부의 개혁이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이 증가하는 양상을 띠었다. PKR내 파벌 갈등과 총리직 이양을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 야권의 공조와 종족 정치의 강화는 정치적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상했다. 삶의 질 개선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에서 이전 정부의 부패에서 비롯된 취약한 재정 여건과 국제경기 침체 등의 대외적 여건은 PH정부가 경제 정책을 펴는데 있어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궐선거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의 동향은 PH정부 국정수행 능력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다. 마하티르는 다양한 국제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며 국제사회에서 말레이시아의 역할을 확대하고자했다. 이를

람 관련 문제와 중국에 대한 실리적 접근은 종족정치와 경제침체 등의 국내 현안에 대한 대응의 연장선에서 전개되었다.

II. 권력 이양의 불확실성과 PKR 파벌 갈등의 심화

2018년 14대 총선이 야기한 가장 큰 정치적 변화는 기존 통일말레이국민기구(UMNO, 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 중심의 패권적인 BN 체제와 달리 새로운 집권연합(PH)내에서 구성 정당들 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 것이다. 단적인 예로, 연방 하원의원 당선자 수는 PKR이 48명(42.1%), 민주행동당(DAP, Democratic Action Party)이 42명(36.8%), 말레이시아뿌리부미연합당(Bersatu, Parti Pribumi Bersatu Malaysia)이 13명(11.4%), 국가신뢰당(Amanah, Parti Amanah Negara)이 11명(9.6%)으로 차이가 있었으나, 내각의 장·차관 비율은 14명(25.9%), 13명(24.1%), 11명(20.4%), 10명(18.5%)으로 특정 정당이 패권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가 마련된 것이다(황인원 2018).

총선 승리 이후 본격적인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PH내 힘의 균형에 기반 한 지배구조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마하티르 총리의 Bersatu가 2019년에 접어들면서 UMNO로부터 탈당한 하원의원들을 입당시키며 ‘몸집 키우기’를 본격화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9년 2월, Bersatu가 7명의 UMNO 탈당 의원들을 받아들임으로써 하원의석수가 22석으로 증가한 것이다(The Star 2019/02/12). 이러한 움직임에 시민단체들은 물론 DAP와 PKR 역시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으나, 마하티르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UMNO 탈당자의 개별적인 입당을 허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러한 Bersatu의 몸집 키

우기가 안와르에게 2년 이내에 총리직을 이양하겠다는 마하티르의 총선 공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PKR 내부의 우려가 증폭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는 향후 집권연합 내 인위적인 힘의 재분배의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PH가 BN과 다르게 국정운영을 할 것인가의 문제는 마하티르의 리더십 스타일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과거 BN체제하에서 마하티르의 정치행태가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강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총선 승리 직후 DAP의 실권자인 림킷샹(Lim Kit Siang)은 PH의 정치문화는 “마하티르 총리가 결정을 하지만, 그 결정은 PH의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언급하였다(Ong and Kow 2018). 그러나 2019년 6월에 반부패위원회(MACC, Malaysian Anti-Corruption Commission) 위원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MACC는 총리가 아닌 의회에 책임을 진다”는 PH의 총선 공약을 무시하고 마하티르가 임명을 강행한 것을 볼 때, 마하티르의 개혁에 대한 인식이 개혁정국(reformasi)을 주도했던 세력들과는 확연한 온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MACC 위원장으로 임명된 라티파 코야(Latheefa Koya)가 임명 직전까지 PKR에서 안와르에 상당히 비판적이고 당내 경쟁자인 아즈민(Azmin Ali) 경제부장관에 가까운 인사였다는 점에서 마하티르의 행보는 안와르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는 마하티르의 정치행태가 과거와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마하티르의 ‘이율배반적인’ 정치행태는 권력 이양의 문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14대 총선 당시 마하티르는 집권 후 2년 안에 총리직을 안와르에게 이양하기로 공약했다. 이에 따르면 마하티르는 2020년 5월에 총리직에서 사임해야 한다. 총리직 이양의 문제는 향후 집권연합의 지속가능성과 정치안정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이슈이다. 그러나 2019년에 접어들면서 권력 이양의 문제에 대한 마

하티르의 ‘애매모호한’ 언급들이 불확실성을 지속시키고 있다. 마하티르 자신은 14대 총선이 부여한 임기를 다 채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했다. 그리고 안와르로의 총리직 이양이 PH의 공약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사임 시점에 대해서는 지극히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 안와르가 아닌 제3자에게 총리직이 이양될 수도 있다는 애매한 입장도 간헐적으로 표출시킴으로써 총리직 이양 관련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양 시기와 관련해서 2년 후에 또는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다거나, 3년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거나, 8월에 들어서서는 “나라가 평정을 되찾을 때(the country has been put on an even keel) 총리직에서 사퇴할 것”이라는 언급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Malaysiakini 2019/08/01).

이런 맥락에서 1998년 이래 개혁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시민단체들은 안와르에게로의 총리직 이양에 대한 명확한 시한을 밝히려는 촉구 서한을 마하티르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순조로운 권력 이양과 정치안정을 위해 최소한 6개월 전에 안와르를 부총리에 임명할 것을 촉구하면서, 적합한 시점으로 2020년 8월이나 2021년 5월을 제안했다. 이들은 또한 총선 당시 총리의 임기를 중임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과 총리에게 집중된 권력을 줄이겠다고 한 PH의 공약을 환기시켰다(The Star 2019/08/07). 시민단체들의 이러한 요구는 PKR에서 안와르와 아즈민 지지자들 간의 파벌갈등이 점차 고조되는 상황에서 마하티르가 선호하는 후계자를 선택하기 위해 총리직 이양을 지연시킬 경우 정치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UMNO와 PAS는 마하티르가 14대 총선의 임기를 채운 후에 퇴임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Malaysiakini 2019/07/27). PAS의 경우, 안와르가 PKR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총리직을 수행할 경우 마하티르에 비해 DAP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것 같지 않다는 이유에서 마하티르가 총리 임기를 마무리할 것을 지지하고 있다(Malaysiakini 2019/08/02). PKR의 수석 부총재인 아즈민과 그의 지지자들 역시 마하티르가 임기를 채우는데 지지를 표명하였다(Malaysiakini 2019/07/29). 특히 2019년에 접어들면서 격화되는 PKR의 파벌 갈등 상황 속에 마하티르가 퇴임 시기를 놓고 계속 저울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9년에 접어들면서 PKR은 심각한 파벌 갈등의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6월에 PKR 전 청년부장이 아즈민 경제부 장관과 동성애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아즈민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하는 ‘동성 섹스 동영상’을 SNS에 폭로하면서 양 진영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정가에서는 이러한 폭로의 배후에 안와르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 아즈민이 자신을 지지하는 20여 명의 하원의원들과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였다.¹⁾ 안와르는 “만약에 폭로가 사실일 경우 아즈민은 장관직에서 물러나고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Fakrull Halim 2019/07/17). 이에 14명의 하원의원을 포함한 26명의 PKR 지도부가 “당을 분열시킬 수 있는 언급을 삼가하라”며 아즈민에 대한 지지 성명을 표명하였다(Malaysiakini 2019/07/18). 이에 대해 안와르를 지지하는 측에서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당내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조짐을 보였다(Malaysiakini 2019/07/26).

안와르와 아즈민의 갈등은 2018년 말 PKR 전당대회에서 안와르

1) 2020년 1월 9일, 말레이시아 검찰은 ‘동성 섹스 비디오’와 관련하여 해당 동영상이 진본인 것은 맞지만 해상도가 낮고 프레임이 부족해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해당 동영상의 주인공이 아즈민 경제부 장관이라는 주장과 이를 유포한 배후에 안와르가 있다는 ‘정치 공작 스캔들’은 일단락되게 되었다. 그러나 검찰이 신원 판독에 실패했다고 밝히면서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남겨 놓았다(Malaysiakini 2020/01/09).

가 아즈민 측에 패배한 자신의 측근들을 당내 지도부에 임명하면서 부터 본격화되었고(김형중·황인원 2019: 72), 동성애 동영상을 둘러싼 ‘정치공작 스캔들’로 악화일로에 접어든 것이다. 2019년 10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안와르와 아즈민이 회동을 하면서 문제를 봉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양 진영은 12월에 열린 전당대회에서 또 다시 심각하게 충돌하면서 PKR의 파벌 갈등의 골은 점차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Malaysiakini 2019/12/09).

Ⅲ. PH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와 보궐선거

PH 정부에게 있어서 2019년은 지난 총선에서 제시한 선거공약의 이행에 대한 민심의 평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한해였다. 마하티르 총리는 2019년 중반에 이르는 시점에서 PH의 총선 공약이 완전히 지켜지지 못했지만 60% 정도는 이행되었다고 주장했다(EIU Country Report November 2019). 지난 총선 이후 BN체제의 급속한 붕괴와 UMNO의 정치적 위기상황의 지속으로 인해 PH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견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PH가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정당연합이라는 것과 종족정치가 지난 반세기 동안 말레이시아 정치를 지배해왔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중국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DAP, 1998년 개혁 정국의 와중에서 태동하여 다종족 정당정치를 표방하는 PKR, 범말레이시아이슬람당(PAS, Parti Islam Se-Malaysia)로부터 분리된 Amanah, 그리고 UMNO와 정치적 근간을 공유하는 Bersatu라는 지극히 이질적인 조합의 PH는 종족과 종교 등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한 이견이 언제든지 증폭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불안정한 집권연합인 것이다. 이와 더불어 2018년 총선이 야기한 가장 두드러

진 결과는 야권에 UMNO와 PAS라는 말레이계 정당만이 유의미한 존재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말레이시아가 여전히 말레이 무슬림들이 주도하는 사회이고, 지난 총선에서 PH에 대한 말레이계의 지지는 30%에 불과한 반면 UMNO와 PAS에 대한 지지가 70%에 달했다는 것은 PH정권에게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2019년에 치러진 5차례의 보궐선거는 PH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를 가늠하는데 흥미로운 결과를 제공한다. 그간 말레이시아에서 보궐선거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는 보궐선거가 한정된 지역에 국한되어 실시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집권연합이 보궐선거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해왔던 사실에서도 기인한다. 1986년 이후 2008년 총선 사이에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80%에 가까운 승리를 하였다(황인원 2011). 그러나 2019년 한해에 치러진 5차례의 보궐선거에서 PH가 단 한 곳에서만 승리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아직 민심이 PH로부터 완전히 이반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PH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만이 고조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표1> 2019년 실시된 보궐선거 결과

선거구	선거일	주요 경쟁 정당	선거 결과	2018년 총선
Cameron Highlands (P)	1월 26일	BN vs. DAP	BN (Orang Asli)	BN(MIC)
Semenyih (S)	3월 2일	UMNO vs. Bersatu	UMNO	Bersatu
Rantau (S)	4월 13일	UMNO vs. PKR	UMNO	UMNO
Sandakan (P)	5월 11일	UMNO vs. DAP	DAP	DAP
Tanjung Piai (P)	11월 16일	MCA vs. Bersatu	MCA	Bersatu

출처: *The Star* 2019년 1월 27일; 3월 3일; 4월 14일; 5월 12일; 11월 17일

참조: (P): 연방의회 (S): 주의회; MIC, Malaysian Indian Congress; MCA, Malaysian Chinese Association

<표1>은 2018년 총선에서 PH가 승리했던 Semenyih 주의회 선거와 Tanjung Piai 연방의회 선거에서 BN에게 패배함을 보여준다.

Semenyih 선거구는 말레이계 유권자가 68%를 차지하는 곳으로 지난 총선 이후 말레이계 유권자들의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곳이었다. 반면에 Tanjung Piai 선거구는 말레이계 57%, 중국계 42%, 인도계 1%로 2018년 총선 전까지 전통적으로 MCA의 텃밭이었다. 2018년 총선에서는 Bersatu가 승리했으나 이번 보궐선거에서 MCA 후보가 다시 의석을 회복하였다. 지난 총선에서 MCA 후보가 Bersatu에 524 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패배하였지만, 이번 보궐선거에서 무려 15,086표 차이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이는 PH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던 중국계에서도 PH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난 총선에서 Tanjung Piai 선거구가 속해있는 조호르의 PH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류첸퉁(Liew Chin Tong) 국방부차관은 “Tanjung Piai 보궐선거에서 PH의 완패는 PH 종말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며 보궐선거의 참패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Malaysiakini 2019/11/17).

보궐선거에서의 연이은 패배는 PH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협소하게 만들었다. 14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PH에 보낸 지지는 나집 정권의 부패에 대한 분노가 중심에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PH가 15대 총선으로 이어지는 정국에서 지난 총선의 지지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패 척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혁, 경제 활성화, 가계 소득의 증대, 양질의 교육 확대와 사회 경쟁력 확보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UMNO와 PAS가 보다 종족적인 맥락으로 정치상황을 몰고 갈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PH정부는 말레이계 지지를 둘러싸고 야당과 경쟁을 본격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PH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인 마하티르의 Bersatu가 UMNO 및 PAS와 함께 종족정치의 맥락에서 말레이계 유권자를 상대로 경쟁을 강화할 경우 PH는 정국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딜레마에 처할 가능성 높고 집권연합 내의 불협화음도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

이다.

사실 PH의 부진한 보궐선거 결과는 2019년 중반에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2019년 6월 20일부터 7월 1일 사이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총선 시기에 비해 PH에 대한 민심이 상당히 이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 2018년 5월 총선 직후와 비교하여 1년이 지난 시점에서 PH에 대한 평가는 말레이계의 만족도가 66%에서 32%로, 중국계는 91%에서 51%로, 인도계는 84%에서 59%로 하락되었고, 평균적인 만족도도 71%에서 41%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하티르 총리에 대한 평가는 14대 총선 당시 83%의 지지율이 1년 만에 62%로 하락하였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9%에서 29%로 증가했다. 총선 직전의 나집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38%, 불신이 57%인 점을 감안하면 마하티르에 대한 지지도는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마하티르에 대한 민심이 상당히 빠르게 이반되어 가고 있음은 분명하다. 종족별로는 말레이계의 지지율이 78%에서 50%로, 중국계는 90%에서 77%로, 인도계는 93%에서 74%로 지지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방향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64%의 긍정성이 40% 수준으로 낮아진 반면, 부정성에 대한 응답은 12%에서 38% 수준으로 높아졌다. 중국계의 경우 긍정적인 평가가 76%에서 53%로 낮아졌고, 말레이계는 64%에서 31%로 낮아졌으며, 인도계의 경우 82%에서 45%로 가장 크게 감소한 추세를 보였다. 부정적 평가는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가 32%로 가장 높았고, 리더십(12%), 약한 정부(12%), 종족적 양극화(7%)가 뒤를 이었다. Tanjung Piai 보궐선거를 앞두고 PH 지도부와 의원들에게만 제공된 10월의 여론조사 결과는 7월보다 더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2) Merdeka Center, "Perception towards Direction, Leadership & Current Issues", 28 June - 1 July 2019.

IV. UMNO와 PAS의 공조체제 강화

2018년 총선 패배로 독립 이후 처음으로 야당의 처지로 전락한 BN과 소속 정당들의 정치적 향배는 상당히 암울했다. 1957년 동맹당(Alliance) 체제로부터는 61년 간, 1973년 BN 체제로는 45년이 유지되었던 집권연합이 사실상 붕괴되는데 단 45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총선 패배 3일 만에 사바와 사라왁의 정당들이 일거에 BN을 탈퇴했고, 중국계 정당인 말레이시아민중운동(Gerakan, Gerakan Rakyat Malaysia)도 1개월 남짓 후에 BN을 탈퇴한 것이다. UMNO와 함께 BN의 최대 지지였던 MCA는 2018년 12월 전당대회에서 BN 자체를 해산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UMNO와 MIC의 동의 없이 BN을 해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2019년을 시작하는 BN의 정치적 향배는 오리무중이었다. UMNO 역시 총선 패배 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하원의원이 54명에서 37명으로 줄어들고 추가 탈당의 소문이 무성하면서 결국 당 해체의 수순을 밟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와 함께 2019년을 맞이했다.

UMNO의 정치적 향배에 관해서는 PAS와의 연계를 통해 보다 중족 및 종교정치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보다 현실적인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지난 총선에서 UMNO와 PAS가 합쳐서 말레이계 유권자로부터 70%가 넘는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말레이시아의 최대 중족인 말레이계가 야당지지 세력으로 남겨졌음을 의미하며, 이는 향후 말레이시아 정치가 중족적인 이슈에 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019년에 접어들면서 결국 우려는 현실화되었다. PH는 총선에서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UN의 보편적 인권 기준에 맞게 몇몇 UN조약의 추인을 공약했다. 대표적인 것이 인종차별철폐국제조약과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대한 추인이었다. 그러나 UMNO와 PAS는 PH의 인종차별철폐국제조약에의 가

입이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되었던 말레이계의 특권을 종식시킬 것이라며 공동으로 반대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양당 공조의 출발을 알렸다.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역시 헌법에 보장된 말레이 술탄들의 특별한 처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PH 정부는 양 조약에 대한 가입 추진을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말레이계의 종족적 이해관계를 매개로 한 UMNO와 PAS의 공조체제는 1월부터 이어진 보궐선거 정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발현되었다. 가장 먼저 치러진 Cameron Highlands 보궐선거에서부터 PAS는 후보자를 내지 않음으로써 대결구도가 BN과 DAP으로 치러지는데 일조했다. 이어지는 Semenyih 보궐선거에서도 말레이계가 다수인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PAS는 보궐선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야권의 말레이계 표 분산을 최소화하여 UMNO의 승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마하티르의 Bersatu는 지난 총선에서 승리했던 곳에서 패배함으로써 말레이계의 지지가 현저하게 위축될 수 있음을 실감하였는데, 실제로 마하티르 스스로 Semenyih 보궐선거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UMNO와 PAS의 공조를 지적했다(Faisal Asyraf 2019). 총선 패배 이후 말레이계 유권자들을 공략하기 위한 UMNO와 PAS의 공조체제가 Cameron Highlands 보궐선거에서 출발하여, Semenyih 보궐선거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DAP 사무총장 림관영(Lim Guan Eng)은 UMNO와 PAS가 “말레이 연대(Malay unity)라는 현수막” 아래에서 “비말레이계와 비무슬림들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며 종족정치로의 회귀에 대하여 비판하였다(Malaysiakini 2019/03/06). UMNO와 PAS의 선거연대는 9월에 접어들어 양당이 국민협동헌장(National Co-operation Charter)에 서명을 함으로써 공식적인 동맹체제로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총선 직후 정가에서는 UMNO가 결국 해체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

는 의견과 내부 개혁을 통해 PH의 대안세력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의견이 공존했다. 그러나 2019년에 전개된 상황은 UMNO가 소속 의원들의 연쇄적인 탈당으로 위기가 심화되는 와중에 PAS와의 연합으로 더욱 말레이 종족과 이슬람에 치우친 정당으로 활로를 찾아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후 일련의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야권이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11월의 Tanjung Piai 보궐선거를 계기로 야권은 UMNO와 PAS를 넘어 MCA까지 포함하는 국민합의(Muafakat Nasional, National Consensus)라는 새로운 공조체제를 가동하였는데 이러한 공조 효과가 선거에서의 압도적인 파괴력을 발휘하였다는 것은 PH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PH의 입장에서 볼 때, Tanjung Piai 보궐선거 결과는 말레이계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중국계의 지지기반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것이었다. 보궐선거 패배 직후 마하티르와 안와르를 비롯해 PH의 거의 모든 지도부에서 선거 패배의 책임을 통감하며 집권 이후 국정운영에 대해 유권자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한 것도 이러한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다.

V. PH 경제 정책의 평가

경제상황은 PH 국정 수행 능력 평가에 있어 핵심적 사안으로 부상했다. 나집 정권의 부정부패로 야기된 재정 건전성의 악화, 상품용역세(GST)도입에 따른 물가 인상 등 경제 분야 실정은 지난 총선을 지배한 이슈였다. PH정부는 집권 직후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GST를 폐지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변화를 모색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부지출 축소와 세수 확대는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통한 경기 부양을 추진해야하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정치

적 부담을 수반하는 정책이다. 종족별, 지역별 경제적 격차가 정치 이슈로 환원될 가능성이 높아서 정책 선택의 폭도 제한되었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나스(Petronas)부터 배당금 수익을 확대하는 한편 민생 관련 조치 확대를 모색했다.

2019년 경제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지만 거시경제지표는 아직 안정적 수준을 보였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요인의 변화를 반영하여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4.9%에서 4.3-4.8%로 하향 조정했다. 2015-19년 평균 경제 성장률 4.9%에 밀도는 전망이다. 3/4분기 경제 성장률은 4.4%로 2/4분기 4.9%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 되었고 3/4분기 제조업 성장은 3.6%에 그쳤다.³⁾

국제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둔화와 자본재 수입 증가로 무역 수지 흑자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대외 경제 여건 속에 주요 수출 분야인 전자·전기 품목의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3/4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에 감소했다. 말레이시아 제품이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기존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수요 감소로 수출이 둔화되고 있다. 상품 및 서비스 수입은 3분기 연속 감소해 3/4분기 수입은 3.3% 감소했다. 국제수지 흑자규모는 GDP대비 3%로 2/4분기 3.8%에 비해 감소했다.⁴⁾

PH정부 출범이후 정부 부채를 축소하겠다고 선언했지만 2019년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GDP대비 2/4분기 52%를 기록해 전년 동기 간 51.2%보다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자체 목표로 삼고 있는 55% 이하 수준으로 기타 국가에 비해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정부 보증을 포함하는 총 국가채무 규모는 2017년 말 GDP의 79.3%에서 2019년 6월 말 기준 77.1%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재무부는 정부

3)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웹사이트 <http://www.bnm.gov.my>.

4)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웹사이트 <http://www.bnm.gov.my>.

사업의 투명성 개선에 따른 감소로 설명하고 2025년까지 65%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Malaysiakini 2019/12/20).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부처 간 이견도 드러난다. 재무부는 현 경제적 문제는 이전 정부의 부정부패와 재정 건전성 악화에 있다고 보고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개혁조치와 정부 지출 감축을 주도하고 있다. 반면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는 나집 정부의 부정부패 해소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⁵⁾ 이러한 부처 간 이견은 주요 경제 조치에서도 드러난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2020년 균형예산을 편성했다. 정부 재정적자 규모는 당초 GDP 대비 3.0%에서 3.2%로 수정됐다. 운용(operation)예산은 GDP대비 17.3%에 달해 정부의 전격적인 예산 감축에는 한계가 있다. 운용 예산 중 공무원 급여성 지출의 비중은 36.9%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GST를 대체한 판매 및 서비스 세(SST)의 도입으로 세입액은 GDP대비 17.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SST는 간접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GDP의 1.8%에 이른다. 세수 확대를 위해 RM2백만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 세율을 기존 28%에서 30%로 인상했으나 그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아울러 현재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유류 보조금을 소비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해당 분야의 신규채용 의사에게 지급하던 RM750에 달하는 보조금을 삭감했다(Malaysiakini 2019/12/20). 세수 보존을 위해 2018년 비상장 국영기업인 삐뜨로나스의 특별 배당금 RM300억을 추가로 편성하고 2019년 배당을 RM240억으로 책정했다.

반면 2020년 예산 중 개발 분야에 RM560억을 편성하는 등 성장 동력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그 중 RM532억은 현재

5) 티안 추아(Tian Chua) 인터뷰, 2020년 1월 16일.

진행 중인 약 4,700여개의 프로젝트에 쓰이며 신규 프로젝트는 약 722개 RM28억 그쳐 실제 경기 진작 효과는 미지수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통해 소비 진작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개별 소득세 환급과 저리의 융자금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 5년간 일자리 창출과 관련 RM65억의 예산을 배정했다. 향후 이주노동자와 경합하지 않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RM10억 예산을 배정하여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약 15만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Malaysiakini 2019/12/26).

저소득층 소득 증대를 위해 주요 57개 도시의 노동자에 대한 최저 임금을 RM1,200으로 인상하고 이를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고용자협회를 중심으로 고용자측이 반발하고 있으나 오히려 노동자측은 도시 지역 최저 임금을 RM1,500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정을 완화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언론계의 구조조정 방침과 관련해 언론사가 고용 지속 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고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정리하고 노동자는 약 2만4천명에 달한다. 이중 희망퇴직자는 약 3천명으로 분야별로는 제조업이 약 8천명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Malaysiakini 2019/12/17).

안정적인 물가 관리는 PH정부의 주요 경제 현안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물가상승은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가져오는 대표적 경제요인이다. 메르데카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현 정권의 국정수행에 부정적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38%로 이중 32%가 경제관련 사안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사안별로는 12%가 물가상승을 지적했다(Merdeka Centre 2019). Emir Research의 조사에 따르면 말레이계의 경우 약 42%가 생활필수품 가격에 대한 불만족을 표시했다. 농촌지

역 거주자들과 저소득층에서 경제상황과 PH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났다(Malaysiakini 2019/12/12).

여론 조사에서 드러나 물가 인상에 대한 불만과는 다르게 실제 지표상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인 수준이다. GST폐지, 국제유류가의 약세와 휘발유 가격 인하 등으로 인플레이션은 2/4분기 0.7%, 3/4분기 1.3%로 안정되었다. 2019년 10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고 당해 전체 물가상승률은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낮은 물가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물가 문제가 지목되는 원인은 그간 구조적으로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9년 세계은행이 발행한 말레이시아 경제에 관한 보고서는 말레이시아 가구 중 약 30%가 식료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약 23%는 주거 마련이 어려운 형편이라고 밝혔다. 물가 수준은 지역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고 여전히 낮은 소득 수준에 비해 주택 가격이 매우 비싼 상황에서 다수의 가구가 빚으로 소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World Bank 2019).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2012년 3.9배에서 2016년 4.8배로 증가했다(Malaysiakini 2019/10/31). 조모(Jomo)교수는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상태(insecurity)가 소득 기준 하위 20%에 국한되지 않으며 심지어 하위 70%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고 경제적 취약 계층 범위를 확대하여 정부의 경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Malaysiakini 2019/12/30).

경제적 문제가 정치적 부담이 되는 형국에서 정치적 요인을 고려한 정부 지출도 발생하고 있다. 2019년 4월 정부는 경영위기에 처한 펠다그룹(FELDA, Federal Land Development Authority)과 따붕하지(Tabung Haji)에 각각 RM63억과 RM178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The Straits Times 2019/4/21). 펠다그룹은 팜오일플랜테이션 기반으로 다수 말레이 소농들이 참여하고 있다. 2012년 상장 이후 지속적

경영문제로 인해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다. 따봉하지는 무슬림의 성지 순례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 기금이다. 이들 두 기관에 대한 구제 금융은 2019년 정부 예산 대비 8%에 달하는 규모이다. 지출 여력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방예산 재편 등을 통해 구제 금융을 실시한 것은 최근 말레이계의 PH정부에 대한 지지도 변화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120만 명에 달하는 FELDA 소농들은 주로 말레이계로서 53개 선거구에 걸쳐 분포되어있다. 따봉하지 지원결정도 성지순례에 참여하는 말레이계의 정치적 요구를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VI. ‘변화와 지속’의 대외정책

정부는 9월 수정된 외교정책기조(foreign policy framework)를 통해 ‘연속성과 변화’를 강조했다. 주변국과의 평화적 갈등해결, 내정 불간섭 원칙 등 근본적 외교 원칙을 유지하며 이슬람국가로서 정체성과 비동맹정상회의를 통한 남남협력 강화도 주요 기조로 포함되었다. 외교정책자문회의(CCFP)를 운영하고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등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변화를 꾀하는 한편, 민주주의, 자유, 인권과 법치 촉진 등 주요 국제 사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변화를 강조했다(MOFA 2019).

마하티르 총리는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국제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레이시아 입장을 표명했다. 이슬람 정체성을 강조하는 한편 남중국해 등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국익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슬람 관련 이슈는 말레이계의 고려를 반영한 국내정치의 연장선으로 이해된다.

9월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마하티르 총리는 인도 정부를 공개적으

로 비난했다. 인도정부가 잠무와 카시미르 지역에 부여했던 자치권을 제약하고 무슬림에 대한 차별적인 이민법 개정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해당지역은 파키스탄과 분쟁 중인 지역으로 무슬림이 다수를 구성하고 있다. 마하티르의 공개 비난에 대해 인도의 민간단체는 말레이시아 팜오일 원유와 관련 상품에 대한 보이콧 운동을 전개했으며 팜오일 수입선이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로 대체되었다. 민간 차원 대응이라는 성격상 인도 정부에 공식적인 항의 가능성이 제약되어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를 다시 고려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2018년 인도가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한 관련 품목은 USD16억에 달한다. 아울러 미얀마의 로힝자 사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Malaysiakini 2020/1/9). 그러나 중국의 신장 위구르 문제에 대해서는 내정의 문제임을 들어 직접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이는 이슬람 정체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지만 중국 문제에 있어서는 실용적 접근을 포기하지 않는 마하티르의 외교 행보를 보여주는 예이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경제적 협력을 회복하는 한편 남중국해 갈등에 있어서는 국제기구를 활용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PH정부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연계하여 나집 정권이 추진했던 동부 해안철도건설사업(ECRL) 프로젝트를 투명성 문제와 과도한 사업비를 이유로 중단시켰다. 그러나 올해 4월 중국에서 개최된 일대일로 정상포럼을 앞두고 해당 사업의 재개 검토를 지시했고 결국 새로운 협상을 통해 정부는 이의 재추진을 결정했다. 구체적 협상내용은 외교적 민감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는 집권 초기 중국 투자와 연관된 대규모 프로젝트의 중단 및 보류결정이 중국 일대일로에 대한 반대를 의미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재협상에서의 유리한 협상 여건을 마련하고 중국계 투자 증가에 대한 말레이계의 정치적 우려에 전략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는 12월 19일 자국 해안에서 200해리 수역이 넘는 대륙붕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유엔의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 말레이시아의 조치는 아세안-중국 간 2021년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인 남중국해 행동준칙(COC)협상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번 말레이시아가 제출한 대륙붕 인정 관련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도 이미 제출한바 있으며, 특히, 2009년에는 베트남과 보고서를 공동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말레이시아의 조치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는 독단적 결정이기보다 2016년 필리핀-중국 간 분쟁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이후 향후 전개될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다자협상과 국제법상 법리 다툼에 대처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해된다(Nguyen Hong Thao 2019).

안보정책에 있어서도 ‘변화와 지속’이 드러났다. 국방부는 2019년 방위백서 발간을 통해 안보 및 국방정책의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신뢰할 수 있는 군, 외부위협으로부터 자유, 재정운영과 군조달의 투명성 등을 강조했다. 외부로부터의 주요 안보 위협 요인으로 중국과 미국 간 갈등의 심화, 동남아시아 주변국의 복잡한 안보 상황, 다양한 비전통안보 위협을 꼽았다.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배타적경제수역(EEZ)과 관련한 주권 행사를 명확히 하는 한편 남중국해가 협력의 플랫폼이 되어야함을 지적했다. 반도와 사바, 사라왁 지역에서의 안보위협에 대한 동시 대응능력을 키우는 한편, 상륙작전 능력을 갖추는 등 남중국해 관련 안보 위협에 실질적인 대처 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말레이시아는 레비논 등에서의 유엔 평화유지군활동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남북한, 북미, 중일 간의 외교적 대화가 있었으나 안보환경은 아직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과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드러냈다(Ministry of Defence 2019).

2019년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정상외교를 중심으로 활발한 외교적 교류가 있었다. 3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했고 11월에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양국 정상이 만났다.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시키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외교 관계 수립 60주년을 맞는 2020년을 기해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할랄산업, 4차산업 공동 대응 등 구체적인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모색했다. 3월에 할랄협력 MOU를 체결했고 11월에는 디지털정부협력 MOU를 체결했다. 조선 및 스마트시티 분야도 해양플랜트 수주와 꼬따끼나발루 도시 개발에 참여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청와대 2019).

VII. 전망

2019년은 PH정부의 정치적 안착과 안정적 국정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가 정치적 현안이었다. PH 내부의 파벌갈등과 총리직 이양을 둘러싼 불확실성의 증가가 정치적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궐선거 결과에서 보듯이 UMNO와 PAS의 공조로 인한 중족정치 강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저소득층의 취약한 경제적 여건과 경기침체는 정치적 민감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

2020년은 위기에 봉착한 PH체제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총리직 이양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PH의 구성정당과 정당 내 파벌 갈등의 해결과 단결 여부가 위기 극복의 핵심적 관건이다. 그 과정에서 현 총리인 마하티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안와르와 아즈민 간 갈등이 동성애라는 민감성과 함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PH 구성 정

당 간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마하티르가 자신의 아들을 염두에 둔 후계구도를 우선시 하거나 그 과정에서 정당 간 이합집산을 시도할 경우 PH 내 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말레이계의 지지획득을 위한 경쟁은 종족 정치 부활과 사회적 갈등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DAP와 시민단체 등이 2018년 총선의 합의 사항 이행과 개혁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총리직 승계에 있어 정치과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2020년 경제성장이 4.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PH정부의 사회 경제 분야의 당면 과제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도입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는 것이다. 대외적 요인에 민감한 제조업 수출 주도 중심의 경제 구조 속에서 단기간 해결책을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가 인상이 주요 정치적 불만 사항으로 제기되지만 정작 원인은 소비자 물가 상승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구매력 상실에 있다. 국내의 정치경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주의에 입각한 외교정책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말레이시아는 유엔 창설 70년 기념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무역정책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수교 60주년을 맞은 2020년에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강화도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형중 · 황인원. 2019. “말레이시아 2018: 국민전선(BN) 체제의 몰락과 희망연합(PH) 체제의 실험.” 『동남아시아연구』 29(1): 49-78.
- 황인원. 2011. “말레이시아 선거정치와 정치변동: 2008년 총선 이후 보궐선거정국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5(1): 329-364.
- 황인원. 2018. “말레이시아 선거권위주의 체제 붕괴의 정치적 함의: 2018년 14대 총선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28(3): 213-261.
- 청와대. 2019. “한 · 말레이시아 정상회담 관련 서면브리핑.” 11월 28일.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771>.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9. “Country Report: Malaysia.” November.
- Faisal Asyraf. 2019. “Dr M Admits Umno-PAS Ties Led to BN Victory in Semenyih.” *Malaysiakini* March 3.
- Fakrull Halim. 2019. “Anwar: If Video is Legitimate, Azmin Must Resign.” *Malaysiakini* July 17.
- Malaysiakini*. 2019. “Azmin ‘Welcomes’ Hadi’s Support for Dr M to Continue Full Term.” July 29.
- _____. 2019. “Chin Tong: Tanjung Piai is Start of Harapan’s End or a New Beginning.” November 17.
- _____. 2019. “Despite Calls for Ceasefire, PKR Delegates Train Guns on Azmin and ‘Cartel’.” December 7.
- _____. 2019. “Dr M Promises not to Stay on as PM beyond Three Years.” July 24.
- _____. 2019. “Dr Mahathir: Unless They Put a Gun to my Head.”

August 1.

- _____. 2019. "Lim Calls Umno-PAS Union a Declaration of 'War' on Non-Malays." March 6.
- _____. 2019. "Numbers Game Continues: Pahang PKR Latest to Back Anwar Amid Rift." July 26.
- _____. 2019. "PAS MP: We Prefer Dr M as PM because He isn't Easily Influenced." August 2.
- _____. 2019. "PKR Leaders and MPs Back Azmin, Urge Anwar to Stop Dividing Party." July 18.
- _____. 2019. "Umno and PAS will Work to Keep Dr M as PM for Full-term - Hadi." July 27.
- _____. 2019. "Harapan Gets 'Average' Score on Gov't Satisfaction Index." December 12.
- _____. 2019. "Give Tax Break to Prevent Layoffs in Other Industries Too." December 17.
- _____. 2019. "Positive Reports Reflects Confidence in Country's Economic Performance." December 20.
- _____. 2019. "Mahathir's Endless Diplomatic Blunders." December 24.
- _____. 2019. "The Malaysian Economy in 2020." December 26.
- _____. 2019. "Understanding Economic Insecurity." December 30.
- _____. 2020. "Sex Videos: Identities Unclear, so No Prosecution, Says AG." January 9.
- _____. 2020. "India Asks Refiners to Stop Buying Malaysian Palm Oil after Row." January 9.
- Merdeka Centre. 2019. "National, Public Opinion Perception Towards Direction, Leadership & Current Issues."

- Ministry of Defense, Malaysia. 2019. "Defense White Paper: A Secure, Sovereign and Prosperous Malaysia."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alaysia (MOFA), 2019. "Foreign Policy Framework of the New Malaysia: Change in Continuity."
- Nguyen Hong Thao. 2019. "Malaysia's New Game in the South China Sea." *The Diplomat* December 21.
- Ong, Andrew and Kow, Gah Chie. 2018. "Kit Siang: Once a Hegemony, Dr M Now a Consensus Builder." *Malaysiakini* May 17.
- World Bank. 2019. *Malaysia Economic Monitor, December 2019: Making Ends Meet*. Kuala Lumpur: World Bank.

인터뷰

- 띠안 추아(Tian Chua). Special Advisor to Minister of Works Malaysia, Chairman of Malaysia Productivity Corporation). 2020년 1월 16일.

(2020.01.19. 투고, 2020.01.21. 심사, 2020.02.04. 게재확정)

<Abstract>

Malaysia 2019: Weakened Pakatan Harapan and Re-allied Opposition Parties

KIM Hyung Jong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HWANG In W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e unfilled commitment to reform has increasingly become a political challenge to the Pakatan Harapan's stable governance. Succession uncertainty from Mahathir to Anwar Ibrahim has sparked a widening rift within Parti Keadilan Rakyat, a core pillar of the coalition government. The re-allied opposition parties and re-emerged race-based politics have appeared to be factors driving political and social instability. In terms of economic management, the implementation of reform measures has been constrained by the limited fiscal resource mainly caused by the former government's corruption and a volatile external economic environment. The results of the by-elections and opinion polls seemed to indicate that the Pakatan Harapan-led government has not yet delivered its promises in handling the people's mandate. Mahathir has adopted a practical stance on international affairs including China and Islam-related issues which reflected its domestic concerns over race-based politics and an economic downturn. 2020 must be the critical

말레이시아 2019: 희망연합의 위기와 새로운 야권공조 출범 27

year for the reform and for the fate of Pakatan Harapan.

Key Words: Malaysia, Mahathir Mohammad, Anwar Ibrahim, Pakatan Harapan, UMNO

